

청년의 구직활동, 이직, 생활시간

성재민*

지난 몇 년간 청년 노동시장에서는 고학력자 실업 증가, 특성화고 졸업자 중심으로 고졸 취업자 증가,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나타나고 있었다. 고졸 취업자 증가는 선취업 후진학 등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대졸 실업이 맞물리면서 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라 해석되는데, 특성화고 졸업자 중 곧바로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 비중은 2011년 61%에서 2016년 35%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이로 인해 고졸 20대 고용률은 최근 몇 년간 상승 중에 있었고, 이들은 주로 이 시기 크게 증가한 제조업과 음식 숙박업에 많이 흡수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2017년 상반기에는 이들 산업이 구조조정과 민간소비 침체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졸 고용률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여성 20대 고용률은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추세에 맞물려 2000년대 내내 비교적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으며, 2017년 상반기에도 지난 몇 년간 청년 여성 취업 증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증가와 맞물려 고용률이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20대 취업의 어려움은 2017년 들어 더 강해진 모습이다. 2017년 들어 2016년에 비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른 연령대는 고용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년층, 특히 20대 고용률은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 20대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5%p 하락한 57.6%, 실업률은 0.1%p 하락한 10.6%로 나타나 취업자도 줄고 실업자도 줄어든 대신 비경제활동인구만 증가하는 모습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로 보면 특히 청년층 취업준비생이 기록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취업준비생은 이번 호 특집에 따르면 대부분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거나 대기업 입사시험 준비생으로 아직까지 경기 회복세가 시작단계여서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특집은 이와 같은 어려운 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해 청년을 주제로 삼았다. 청년의 구직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는지를 분석하는 글, 어렵사리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이직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첫 일자리 이직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글, 청년의 취업준비 기간이 나날이 길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seongjm@kli.re.kr).

어지는 현상을 생활시간 측면에서 바라보는 글로 구성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미취업자이면서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니트(NEET)의 경우 전체 가구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누어볼 때 하위 1분위 저소득층 청년니트일 경우 4.5%만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응답했는데, 상위 5분위 가구의 청년 니트는 30.8%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해 구직활동의 패턴이 가구소득과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첫 일자리 이직의 주요 원인은 낮은 임금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와 교육수준의 적합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시간관리 측면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청년층은 학습시간이 증가하는 형태로 시간관리 방식이 변화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특히 졸업 후 미취업자의 경우 여가시간이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를 취업목적 학습시간에 배분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번 호 원고들은 이와 같이 짐작은 되나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는 없었던 청년 구직활동과 이직, 시간관리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결과들을 담고 있다. 청년 노동시장과 청년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KLI**